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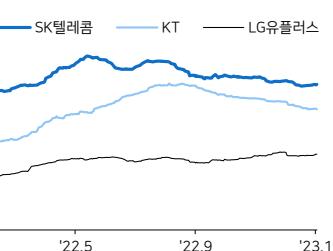
2023.1.9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2.4	-4.1	2.6	-2.6	11.5	8.9	0.9	0.8	2.4	2.5	
통신업종	0.5	-7.3	-2.5	-10.0	7.4	6.9	0.6	0.6	6.9	7.2	
SK텔레콤	0.4	-5.2	-5.2	-11.9	11.1	9.1	0.9	0.9	7.1	7.5	
KT	0.4	-9.7	-2.3	-7.4	7.0	6.4	0.6	0.5	6.6	7.0	
LG유플러스	0.5	-6.7	3.7	-9.8	7.3	6.6	0.6	0.6	5.7	6.3	
AT&T	5.9	2.1	30.7	-6.1	7.5	7.7	1.1	1.0	6.2	5.7	
Verizon	7.5	13.7	14.5	-16.4	8.2	8.4	2.0	1.7	6.1	6.2	
T-Mobile	6.6	3.3	8.0	9.5	72.9	21.9	2.6	2.7	0.0	0.0	
NTT	-1.5	1.2	-5.7	-2.3	11.8	10.7	1.6	1.5	3.1	3.3	
KDDI	-0.8	-0.1	-6.2	-7.1	13.4	12.7	1.8	1.7	3.1	3.4	
Softbank	1.8	-4.6	5.7	7.7	18.9	15.7	0.9	0.8	0.8	0.8	
China Mobile	4.1	3.6	5.7	8.9	7.8	7.2	0.8	0.8	8.2	9.5	
China Unicom	6.0	12.3	43.1	37.0	8.1	7.3	0.4	0.4	5.9	7.1	
China Telecom	6.6	1.6	14.6	20.6	9.1	8.1	0.6	0.6	7.1	8.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7% (+0.1%p WoW, -0.3%p MoM)

KT 43.0% (+0.0%p WoW, -0.5%p MoM)

LGU+ 38.2% (+0.1%p WoW, +0.2%p MoM)

통신 3사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1월 첫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9%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LGU+, 노키아·삼지전자와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 연동 성공
KT 엠보바일, 월 2만원대 5G 요금제 2종 출시. 알뜰폰 5G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통신 3사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9일(월) 미 국무부 경제차관·KT·SKT 경영진, 오픈랜(Open RAN) 기술 협력 방안 논의

KT 임원인사·조직개편 일정이 1월 중 발표 예정이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 2월 또는 3월에 임원인사 단행될 가능성
통신 3사 2023년 신년사 발표, SKT AI컴퍼니 전환·KT 디지코 유지·LGU+ 'U+3.0' 시대 강조하며 탈통신에 주력
버라이즌, 매출 성장과 현금 창출 위해 2025년까지 연간 비용 20억~30억 달러 절감하기 위한 비용 절감 계획 발표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미 국무부 경제 차관 - KT · SKT 경영진, 오픈랜 표준화 논의	10	11	12	13	14

3 주간 뉴스

국민연금이 쏘아올린 공…KT 임원인사·조직개편 발표 '안갯속'

(아이뉴스24)

- KT 임원인사·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 종론
- 앞서 KT가 사회는 협회 CEO인 구 대표를 차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로 확정
- KT 임원인사·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이달 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속단하긴 어려운 상태
⇒ 1월 중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2월 또는 3월에 임원인사가 단행될 가능성
- ⇒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마친 상황

통신3사, 5G 중간요금제 또 나온다…첫발은 SKT

(뉴스1)

- 올해통신3사가 다양한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선보일 예정
- 지난해 출시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 SK텔레콤은 현재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준비 중, 24GB 이하 구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새로운 중간요금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마련될 예정
- ⇒ KT, 추가 중간요금제는 요금제에 대한 고객 니즈와 상황 고려하겠다고 언급

LGU+, 노키아·삼지전자와 오픈랜 표준화 장비 연동 성공

(데일리안)

- LGU+, 노키아·삼지전자와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장비 연동 성공
- 연동 성공한 장비는 O-DU와 O-RU로, 5G 오픈랜을 구성하는 오픈랜 글로벌 표준 기반 기지국 장비
- 이번 장비 연동 성공으로 LGU+는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업 통해 오픈랜 토탈 솔루션 확보
⇒ 국내 중소기업의 오픈랜 기술력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지전자와 O-RU 개발비용 투자 예정
- ⇒ 국내 통신환경에 적합한 오픈랜 장비를 추가로 개발하고 필드 트라이얼을 진행할 예정

통신 3사 올해 화두는 5G 중간요금제·주파수·망 사용료 '2차전'

(조선비즈)

- 올해는 지난해 출시했던 5G 중간요금제가 보다 다양하게 나올지 주목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중간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 5G 주파수 관련 28GHz 대역 재할당과 관련해 어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 확인 필요
⇒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작사업자(CP)의 '망 사용료' 갈등도 이어질 전망
- ⇒ 올해 초에는 5G 3.7~3.72G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과기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

이통3사 CEO 신년사 살펴보니…'탈통신' 두각

(아이뉴스24)

-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023년 신년사 발표
- SKT는 AI컴퍼니로의 도약과 전환, KT는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기조 유통을 강조
- LG유플러스는 고객 감동을 통한 'U+3.0' 시대를 선언하며 '탈통신'에 주력
⇒ SKT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핵심사업 분야를 AI중심으로 재편
⇒ LGU+, 미디어 분야 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콘텐츠 전문 브랜드 'STUDIO X+U' 공개

한국 오는 美 국무부 경제차관…SKT·KT 경영진 만나 오픈랜 표준화 논의

(아주경제)

- 9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 경영진 만날 예정
- 차세대 5G(5.5G)와 6G 기술의 핵심인 '오픈랜(Open RAN)'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 미국 정부는 화웨이 견제 일환으로 한국, 일본 등에 오픈랜 도입하자고 적극 권유해온 상황
⇒ 이번 만남에서 오픈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의견 청취
- ⇒ 중국 정부와 화웨이 견제 일환으로, 만남에서 청취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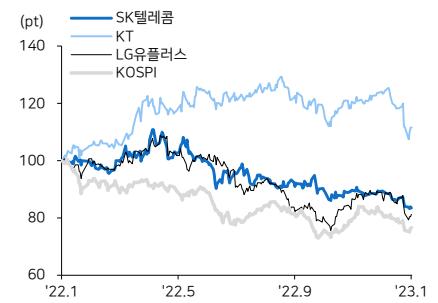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47,600	8.3	13.6	14.1	1.3	1.4	0.7	0.9	4.3	4.4	3.7	3.6	7.9	9.4
	KT	33,950	7.1	20.2	20.9	1.4	1.5	1.0	1.0	4.3	4.5	3.1	2.9	8.1	8.3
	LG유플러스	11,100	3.9	11.0	11.3	0.8	0.9	0.5	0.6	2.8	2.9	3.2	3.1	8.3	8.8
미국	AT&T	19.5	139.2	126.1	122.8	22.8	24.0	19.1	18.8	41.5	42.7	6.9	6.7	13.3	13.4
	Verizon	42.2	177.2	136.8	138.5	30.8	31.2	20.8	20.9	47.9	48.6	6.8	6.7	24.5	21.8
	T-Mobile	148.6	184.8	80.1	82.9	6.8	14.5	2.5	8.2	27.4	29.3	9.4	8.8	3.7	13.0
일본	NTT	3,741	102.6	93.4	95.6	13.6	13.8	8.7	9.1	25.2	25.4	6.9	6.7	14.6	14.3
	KDDI	3,988	69.5	41.6	41.9	8.1	8.2	5.1	5.2	13.9	13.5	5.7	5.7	13.8	13.5
	Softbank	5,816	75.9	47.3	49.1	-1.4	6.7	4.4	5.2	4.4	13.8	44.7	14.0	4.7	5.5
중국	China Mobile	53.3	149.3	134.3	144.1	18.8	20.5	18.3	19.5	47.8	50.5	2.0	1.9	10.2	10.5
	China Unicom	5.1	20.0	50.8	53.6	2.0	2.4	2.4	2.7	14.4	14.9	1.0	1.0	5.0	5.4
	China Telecom	3.2	54.6	70.6	76.3	5.2	6.0	4.2	4.7	19.3	20.7	2.7	2.5	6.5	7.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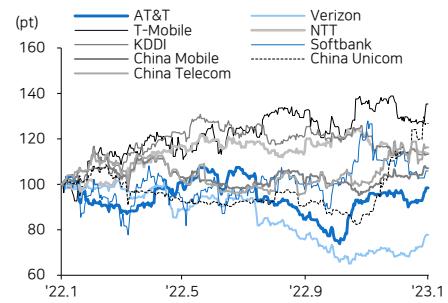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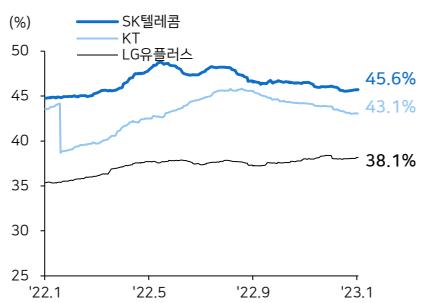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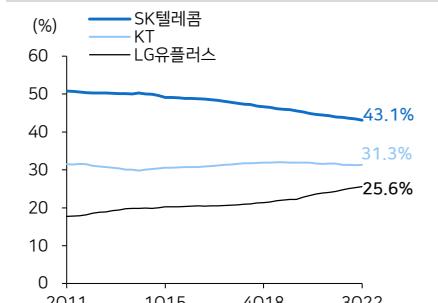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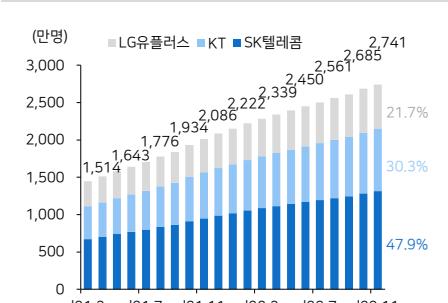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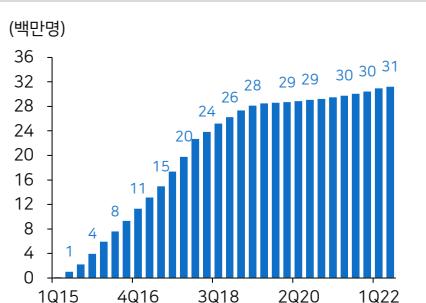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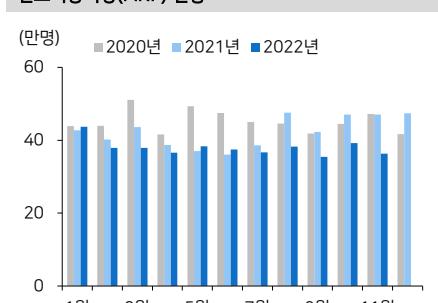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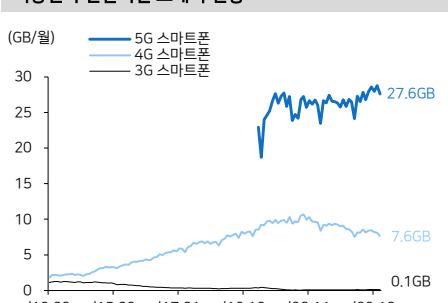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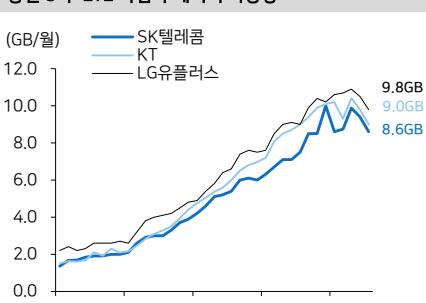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